

이덕일의 '역사의 창'



정권 성패의 시험문제

1945년 2월 미·영·중·소 수뇌부는 알타에서 모여 종전 후 문제를 논의했다. 미국의 루스벨트가 소련의 스탈린에게 대일전 참전을 권고하자 스탈린은 그 대가로 러일전쟁(1904) 이전 제정 러시아가 갖고 있던 이권 반환을 요구했다. 요동반도의 대련(大連)과 여순(旅順) 등 중국 내 영토를 달라는 말이었다. 장개석이 거부하자 스탈린도 참전을 거부했다. 그해 7월 미·영·중·소 수뇌부는 포츠담에서 만났는데, 이때는 미국이 소련의 참전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았다. 비밀리에 원자 폭탄 실험이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민이 자유롭게 표명하는 의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거부했다.

항복 조건이 거부되었음에도 도쿄에 원폭이 투하될 가능성을 겁낸 일왕 히로히토는 8월 14일 어전회의에서 무조건 항복을 결정했고, 다음날 무조건 항복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은 8월 15일 서안(西安)에서 일본의 항복 소식을 듣고는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라고 토로했다. 외세가 특세하리라는 예상 때문이었다. 일본의 예상보다 빠른 항복은 한반도 정치 지형에 결정적 변화를 초래했다. 백범의 예상대로 소련군은 1945년 8월 22일 평양에 진주하였고, 미군 제24사단은 9월 8일 인천에 상륙한 지 이틀 후에 서울에 입성하였다. 이렇게 해방과 동시에 되찾은 조국은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35년의 식민 통치 끝에 해방된 나라에서 제1의 국정과제는 친일 잔재 청산이었다. 그러나 미군정은 친일파를 온존시키는 반역사적 정책을 채택했고, 친일파들은 여전히 제 세상이나 할게 됐다. 좌·우파를 막론하고 독립운동에 나섰던 정치 세력은 모두 도태되었다. 1948년 8월 15일 남한에는 이승만 중심의 독립촉성중앙회(자유당)와 친일 자주 중심의 한국민주당(한민당)이라는 두 친일 정당이 여와 야를 이루는 비정상적 정치 체제가 만들어졌다.

역사학계도 마찬가지였다.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계승하려던 민족주의 역사학과 맑스주의 사적유물론을 따르는 사회경제사학계는 모두 항일 독립운동에 나섰던 좌우학자들이 주축이었다.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에서 자국사를 난도질하던 식민사학계는 매국 친일파들이 주축이었다. 미 군정과 6·25전쟁을 거치면서 민족주의 역사학은 제거되었고, 사회경제사학자들은 월북해 북한 역사학의 중추를 이루었다. 조선사편수회의 이병도, 신석호는 남한의 역사학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식민사학이란 이름표를 실증사학으로 바꿔 달고 총독부 역사관을 하나뿐인 정설로 승격시켰다.

유일하게 보수도 진보도 없는 이 갈라파고스에서 이병도, 신석호는 여전히 국사학계의 태두로 추앙받고 있는데 필자는 이들이 말하는 '나라 국(國)'자가 대한민국(國)인지 대일본제국(國)인지 늘 궁금하다.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정신과는 정반대로 적폐 중의 적폐인 식민사학과 한 몸이 되었다가 명분을 잃고 정권도 빼앗겼다.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만약 식민사학과 한 몸이 되는 길을 택한다면 늘 그랬었던 것처럼 그 역시 말로가 좋을 수는 없다. 이 문제는 비단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모든 정권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시험문제가 된다.

<순천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

의료칼럼

예방접종 중요성



김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강진의원 원장

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한다.

성인 예방접종의 종류나 대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 보자면 A형간염 같은 경우 20~30대가 50%나 차지할 정도이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필수 예방접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현재 보유율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에 접종한 이력이 없고, 워생 관리가 어려운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면 사전에 미리 접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혼 여성들은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는 것이 좋다. 특히나 성 접촉에 따른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맞음으로써 높은 확률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파상풍 같은 경우는 10년 주기로 재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시간이 흐르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고자 성인 예방접종으로 재접종 주기를 잘 지켜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심한 통증과 물집을 형성하는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낮아지면서 나타날 수 있다. 나타났다가 간단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얼굴 쪽 부위에 나타나게 된다면 기능 손상을 동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성인 예방접종으로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노년층은 더욱 신경을 써서 접종을 해 주어야 한다. 아무래도 노년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면역력이 약해지게 된다면 바이러스의 침투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 질병에 걸리게 된 다음에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쉽게 악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인 예방접종을 통해 사전

에 미리 면역력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해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성인에게 일반적으로 권장되고 있는 예방접종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인플루엔자 는 만 50세 이상 성인, 폐렴구균은 만 65세 이상 성인,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는 모든 성인, 대상포진은 만 60세 이상 성인, A형 간염은 만 20~39세 성인이 대상이다. 이 중 만 65세 이상은 인플루엔자와 폐렴구균에 대해서 국가 예방접종 사업으로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후에는 어떤 것에 주의해야 할까? 잘 알려져 있듯 모든 예방접종은 급성이나 필라리아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접종 후에는 15~30분간 접종 기관에서 이상 반응이 있는지 관찰하고 귀가하는 것이 좋다. 접종 당일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접종 후 2~3일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예방접종 후 면역 형성 과정에서 접종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 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 반응은 정상적인 것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2일 이내 호전된다.

그러나 증상이 심하거나 길게 지속될 때 또는 호흡 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다른 흔하지 않은 증상 등이 나타났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접종을 받더라도 항체가 형성되는데 2~4주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질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바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또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항체는 일정 기간 경과 후 다시 접종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기억의 풍경



이중섭 소설가

치 영정 속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집안을 하나하나 투시하는 느낌이었다.

이제 유골함을 모시고 납골당으로 갈 시간이었다. 누나에게 함께 가지고 가자고 막무가내 소리를 질렀다. 화가 잔뜩 났는지 방문을 팽 잡았다. 대화가 되지 않는 한 인간을 집에 남겨 두고 납골당으로 향했다. 지난 이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마을 어른들과 다름이 있었다. 전통 제례 의식을 치르는 집안 납골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찌에 맞아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족들이 대부분 교회를 다녀서인지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오기 전에 화장터에서 미리 시골 친구와 전화로 찬송가만 부르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도 이런 경우가 빈번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었다.

무사히 어머니의 유골함을 아버지의 유골함과 한 공간에 나란히 안치시켰다.

“여기가 앞으로 할머니가 계시 곳이야.”

상복을 입은 조카들이 유골함이 놓인 장소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여기는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가 죽으면 들어갈 곳이고...”

미리 번호가 새겨진 네모난 공간을 열어 보였다. 조카들보다 아내가 더 유심히 살폈다. 먼지가 있는지 손으로 털어냈다. 뜻밖이었다. 지레 당신네 이씨 가문의 납골당에 왜 내가 들어가야 해, 하며 소리칠 줄 알았다.

마을의 나이 든 어른들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고향 풍경이 하나씩 사라진다. 이제 어머니의 모습은 내 기억 속에 아련한 풍경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의자 안에서 가족들의 얼굴이 한층 밝아 보였다. 오고 가는 대화 중에 내 소설책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자기 장모 이야기는 많이 썼는데 내 이야기는 하나도 없잖아.”

죽기 전에 어머니가 여동생에게 서운함을 털어놓았다. 다들 웃었다. 아내가 그 말에 반가워서인지 어떻게 그 작은 글자를 읽으셨대요? 하며 끼어들었다. 조금 여유가 생긴 가족들이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우수한 학생이었다는 농담부터 이리저리 얘기들이 이어졌다. 어머니는 결국 며칠 전에 출간한 두 번째 소설책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표지라도 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내 이기적인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그날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깊었다. 머리가 멍하고 몸은 빠듯한데 잠이 오지 않았다. 술을 한 잔 마셨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멍하게 앉아 있는데 멀리 고향의 모습이 떠올랐다. 허리를 구부리고 집으로 돌아간 마을 할머니들의 모습이 겹쳤다. 텅 빈 집에 혼자 있을 누나의 모습도 이어졌다. 마을 뒤 언덕배기 납골당에 놓인 어머니의 유골함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어르거렸다.

오늘 밤 고향 할머니들은 망자인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제 다음 차례는 자신일지도 모르겠다고 몸을 뒤척일 터였다. 누나는 밤에 홀로 자는 것이 무서워 교회로 갈 때마다 자신만 남겨두고 떠난 어머니에게 써부령씨부령할 것이다.

마을의 나이 든 어른들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고향 풍경이 하나씩 사라진다. 이제 어머니의 모습은 내 기억 속에 아련한 풍경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社說

소비자 불편 큰 은행 단축 영업 정상화해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시작된 금융권의 단축 영업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 4개월이 넘었는데도 시중은행과 제2 금융권은 이전보다 한 시간 단축한 영업 시간을 지속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금융권은 지난해 7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자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던 영업 시간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으로 한 시간 줄였다. 하지만 지난해 8월 8일 거리두기 3단계가 해제됐는데도 금융권은 단축营业을 지금까지 1년 넘게 지속하고 있다. 이유는 금융권 노조가 “교섭을 통해서만 영업시간 단축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을 들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일부 금융권이 영업시간을 변경해 운영하는 ‘탄력점포’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단기 대책에 그칠 뿐이다. 광주은행이 다음 달부터 광

주 두 개 지점의 영업시간을 다른 점포보다 30분 늦게 열고 30분 늦게 닫기로 했는데 결국 운영시간은 코로나 이전보다 한 시간 줄어 단축 영업이기는 마찬가지다.

급기야 소비자정책감시단체인 ‘퀵스머워치’가 며칠전 논평을 내고 소비자 편의를 고려하라며 금융권의 영업시간 단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지만 금융권은 탄력점포 운영이나 영업시간이 7~9시간으로 조금 긴 극소수 점포 운영으로 생색내기만 할 뿐 소비자들의 불편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금융권은 코로나 이전부터 점포 수를 줄이고 비대면營業을 늘려 왔다. 그로 인해 노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고충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코로나 거리 두기를 이유로 기존 점포마저 단축營業을 시작해 놓고 1년이 넘도록 소비자 불편을 외면하는 것은 금융기관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지 금이라도 단축營業을 정상화하는 것이 책임 있는 금융기관의 자세일 것이다.

“국민 뜻 받들겠다”는 윤, 실천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성과와 향후 구상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며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모두 발언에서는 ‘국민’을 20번, ‘경제’를 18번 언급하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인사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철저하게 다시 챙기겠다”고 자세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변화를 시사한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폐기와 규제 개선, 세계 정비, 탈원전 생태계 복원, 한미동맹 정상화, 한일관계 개선 노력, 민중수석실 폐지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난 100일간 국정 운영은 국민으로부터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20%대까지 추락한 지지율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회견 질문에서도 제기됐듯이 윤 대통령에게 표

를 준 사람의 절반 가까이가 석 달 만에 떠났다. 그 원인으로서는 인사 실패와 주 52시간제 및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 등 정책 난맥, 독단적 태도 등이 꼽힌다.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 징계를 둘러싼 여당의 내분으로 국정 불안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0.73% 차이로 신승한 지난 대선 결과 윤 대통령이 협치와 소통으로 국정을 수행하라는 민심의 요청이었다. 하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로 민생경제는 악화일로이고 미중 대립 속에 외교적 난제들이 쌓여가도 국가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통합과 협치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 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잘 받들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국민은 지지 여부를 떠나 성공한 대통령을 보고 싶어 한다. 그 기대에 부응하려면 재출발의 각오로 쇠신하고, 실천으로 진정성을 입증하는 길뿐이다.

無等鼓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이 막 시작된 시기, 런던을 비롯해 맨체스터·요크·리버풀 등의 도시들은 갑작스런 인구 증가로 어려움을 겪었다. 갈 곳이 없어진 소작농들이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했던 도시의 공장에 취업하거나 빈민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겨우 잠만 잘 수 있는 불식 주택에 머물렀다. 하루 종일 햇빛은 볼 수 없었고, 수도·하수 시설도 없어 집 주변 진흙탕으로 오폐수가 흘렀으며, 자재를 대충 엮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다.

전염병과 재해의 원인이 되는 영터리 주택이 범람하자 도시화·전문가들이 대거 유입되고, 집값을 추구했고, 정부와 도시 지자체 역시 점차 이를 인정하게 됐다. 이에 앞장선 대표적인 학자는 존 러스킨·패트릭 게데스·카밀로 지테 등이었다. 이들의 노력은 영국 정부를 움직여 1845년 토지법, 1847년 도시개선편법, 1875년 공중보건법에 이어 1890년 노동계급 주택법을 제정하면서 도시 환경과 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가 가능해졌다.

이들 법안은 ‘돈벌이’에만 급급한 건축주·토지 소유주·자본가 등에 맞서 최소한의 도시 및 주거 환경을 갖추기 위해 공공

이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노동계급 주택법은 공공의 임대주택 건설, 빈민 지역 수용 및 정비 등을 명시하면서 민간에게 내맡겼던 주택 문제를 사회 모두가 해결해야 할 의무로 규정했다. 그 의의가 크다. 일부 자본가들도 협동 주택, 자립 주택 등 질 높은 주거 단지를 조성해 혁신을 이끌었다.

최근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반지하방이영화 ‘기생충’ 이후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반지하에 살던 발달장애인 일가족 세 명과 또

다른 기초생활수급자 한 명이 잇따라 숨졌기 때문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을 주거용으로 세를

주며 돈을 버는 건축주들, 이를 허가해 주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없을 수 없다.

130여 년 전 영국에서처럼 21세기 대한민국 도시에서도 모두가 일정 수준의 주거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와 공공의 개입은 불가피하다. 건설업체와 부유층 등에게만 혜택을 안겨 주는 대규모 민간 주택 공급 방안과 규제 완화를 되풀이해서는 주거 양극화의 심화와 빈곤층의 희생만 되풀이될 뿐이다.

/윤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편집국인내, 1952년 4월 20일 創社, 대표전화 222-8111, 222-4918, 222-0649, 222-0652, 222-0663, 222-0642, 222-0680, 222-0661, 222-0692, 222-0693, 222-0621, 222-0515, 222-0519, 222-0520, 222-0521, 222-0522, 222-0523, 222-0524, 222-0525, 222-0526, 222-0527, 222-0528, 222-0529, 222-0530, 222-0531, 222-0532, 222-0533, 222-0534, 222-0535, 222-0536, 222-0537, 222-0538, 222-0539, 222-0540, 222-0541, 222-0542, 222-0543, 222-0544, 222-0545, 222-0546, 222-0547, 222-0548, 222-0549, 222-0550, 222-0551, 222-0552, 222-0553, 222-0554, 222-0555, 222-0556, 222-0557, 222-0558, 222-0559, 222-0560, 222-0561, 222-0562, 222-0563, 222-0564, 222-0565, 222-0566, 222-0567, 222-0568, 222-0569, 222-0570, 222-0571, 222-0572, 222-0573, 222-0574, 222-0575, 222-0576, 222-0577, 222-0578, 222-0579, 222-0580, 222-0581, 222-0582, 222-0583, 222-0584, 222-0585, 222-0586, 222-0587, 222-0588, 222-0589, 222-0590, 222-0591, 222-0592, 222-0593, 222-0594, 222-0595, 222-0596, 222-0597, 222-0598, 222-0599, 222-0600, 222-0601, 222-0602, 222-0603, 222-0604, 222-0605, 222-0606, 222-0607, 222-0608, 222-0609, 222-0610, 222-0611, 222-0612, 222-0613, 222-0614, 222-0615, 222-0616, 222-0617, 222-0618, 222-0619, 222-0620, 222-0621, 222-0622, 222-0623, 222-0624, 222-0625, 222-0626, 222-0627, 222-0628, 222-0629, 222-0630, 222-0631, 222-0632, 222-0633, 222-0634, 222-0635, 222-0636, 222-0637, 222-0638, 222-0639, 222-0640, 222-0641, 222-0642, 222-0643, 222-0644, 222-0645, 222-0646, 222-0647, 222-0648, 222-0649, 222-0650, 222-0651, 222-0652, 222-0653, 222-0654, 222-0655, 222-0656, 222-0657, 222-0658, 222-0659, 222-0660, 222-0661, 222-0662, 222-0663, 222-0664, 222-0665, 222-0666, 222-0667, 222-0668, 222-0669, 222-0670, 222-0671, 222-0672, 222-0673, 222-0674, 222-0675, 222-0676, 222-0677, 222-0678, 222-0679, 222-0680, 222-0681, 222-0682, 222-0683, 222-0684, 222-0685, 222-0686, 222-0687, 222-0688, 222-0689, 222-0690, 222-0691, 222-0692, 222-0693, 222-0694, 222-0695, 222-0696, 222-0697, 222-0698, 222-0699, 222-0700, 222-0701, 222-0702, 222-0703, 222-0704, 222-0705, 222-0706, 222-0707, 222-0708, 222-0709, 222-0710, 222-0711, 222-0712, 222-0713, 222-0714, 222-0715, 222-0716, 222-0717, 222-0718, 222-0719, 222-0720, 222-0721, 222-0722, 222-0723, 222-0724, 222-0725, 222-0726, 222-0727, 222-0728, 222-0729, 222-0730, 222-0731, 222-0732, 222-0733, 222-0734, 222-0735, 222-0736, 222-0737, 222-0738, 222-0739, 222-0740, 222-0741, 222-0742, 222-0743, 222-0744, 222-0745, 222-0746, 222-0747, 222-0748, 222-0749, 222-0750, 222-0751, 222-0752, 222-0753, 222-0754, 222-0755, 222-0756, 222-0757, 222-0758, 222-0759, 222-0760, 222-0761, 222-0762, 222-0763, 222-0764, 222-0765, 222-0766, 222-0767, 222-0768, 222-0769, 222-0770, 222-0771, 222-0772, 222-0773, 222-0774, 222-0775, 222-0776, 222-0777, 222-0778, 222-0779, 222-0780, 222-0781, 222-0782, 222-0783, 222-0784, 222-0785, 222-0786, 222-0787, 222-0788, 222-0789, 222-0790, 222-0791, 222-0792, 222-0793, 222-0794, 222-0795, 222-0796, 222-0797, 222-0798, 222-0799, 222-0800, 222-0801, 222-0802, 222-0803, 222-0804, 222-0805, 222-0806, 222-0807, 222-0808, 222-0809, 222-0810, 222-0811, 222-0812, 222-0813, 222-0814, 222-0815, 222-0816, 222-0817, 222-0818, 222-0819, 222-0820, 222-0821, 222-0822, 222-0823, 222-0824, 222-0825, 222-0826, 222-0827, 222-0828, 222-0829, 222-0830, 222-0831, 222-0832, 222-0833, 222-0834, 222-0835, 222-0836, 222-0837, 222-0838, 222-0839, 222-0840, 222-0841, 222-0842, 222-0843, 222-0844, 222-0845, 222-0846, 222-0847, 222-0848, 222-0849, 222-0850, 222-0851, 222-0852, 222-0853, 222-0854, 222-0855, 222-0856, 222-0857, 222-0858, 222-0859, 222-0860, 222-0861, 222-0862, 222-0863, 222-0864, 222-0865, 222-0866, 222-0867, 222-0868, 222-0869, 222-0870, 222-0871, 222-0872, 222-0873, 222-0874, 222-0875, 222-0876, 222-0877, 222-0878, 222-0879, 222-0880, 222-0881, 222-0882, 222-0883, 222-0884, 222-0885, 222-0886, 222-0887, 222-0888, 222-0889, 222-0890, 222-0891, 222-0892, 222-0893, 222-0894, 222-0895, 222-0896, 222-0897, 222-0898, 222-0899, 222-0900, 222-0901, 222-0902, 222-0903, 222-0904, 222-0905, 222-0906, 222-0907, 222-0908, 222-0909, 222-0910, 222-0911, 222-0912, 222-0913, 222-0914, 222-0915, 222-0916, 222-0917, 222-0918, 222-0919, 222-0920, 222-0921, 222-0922, 222-0923, 222-0924, 222-0925, 222-0926, 222-0927, 222-0928, 222-0929, 222-0930, 222-0931, 222-0932, 222-0933, 222-0934, 222-0935, 222-0936, 222-0937, 222-0938, 222-0939, 222-0940, 222-0941, 222-0942, 222-0943, 222-0944, 222-0945, 222-0946, 222-0947, 222-0948, 222-0949, 222-0950, 222-0951, 222-0952, 222-0953, 222-0954, 222-0955, 222-0956, 222-0957, 222-0958, 222-0959, 222-0960, 222-0961, 222-0962, 222-0963, 222-0964, 222-0965, 222-0966, 222-0967, 222-0968, 222-0969, 222-0970, 222-0971, 222-0972, 222-0973, 222-0974, 222-0975, 222-0976, 222-0977, 222-0978, 222-0979, 222-0980, 222-0981, 222-0982, 222-0983, 222-0984, 222-0985, 222-0986, 222-0987, 222-0988, 222-0989, 222-0990, 222-0991, 222-0992, 222-0993, 222-0994, 222-0995, 222-0996, 222-0997, 222-0998, 222-0999, 222-1000.